서길원 大記者

세상읽기

호남 '민주당의 입맛'에만 맞고, '유권자의 입맛'에는 '퉤퉤'

정권교체까지 이뤄진 마당에 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해진 탓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입맛'에만 맞고, '유권자의 입맛'에는 '퉤퉤'인 후보 공천에 심판을 하고자 하는 주권자로서의 자존심도 투영되고 있다.

6·3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과 함께 유권자들 사이에서 '어차피 민주당'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관심이다.

이번 선거는 전남광주 통합과 광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각종 변화 속에 치러진다. 지역 정치 지형에 여느 때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선거에서 도농복합의 전남 지역 22개 기초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22곳 모두 무소속과 야권후보들이 출마,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

최근 공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과 비민주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가 하면 어느 경우 오히려 야권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또는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지르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의 경우 현직 시장인 노관규 무소속 후보가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를 벗어나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는 상황이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어 민주당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여느 선거와 달리 전남 지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러한 위기감에 따른 현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황금연휴 이자 공식선거 운동 유세 첫 주말인 지난달 23·24일, 격전지로 꼽히는 순천·광양·담양 등을 돌며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것도 이러한 위기감의 반증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도 호남지역에서 무소속이나 야권후보들이 약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이유는 공천된 후보의 능력과 자격문제로 집결된다. 민주당의 후보가 '민주당 공천'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오히려 부적합한 인물들이 많다는 점이다. 예전 같으면 미흡하거나 전라도 말로 '갈잖아'도 눈 감고 민주당 후보를 찍었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호남에서도 정치적 경쟁이 있다면 '피가 더러워 저런 XX같은 자식이…'라는 막말을 해도 민주당이 '우리 후보'라며 감싸고 돌았겠느냐는 반성이기도 하다.

정권교체까지 이뤄진 마당에 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희박해진 탓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입맛'에만 맞고, '유권자의 입맛'에는 '퉤퉤'인 후보 공천에 심판을 하고자 하는 주권자로서의 자존심도 투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1당의 싹쓸이'가 가져오게 되는 '지역 정치의 오만'과 '지역발전의 정체' 등 자각이 '인물중심'의 선택으로 이어지면서 비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을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능력만 있다면 비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눈치 보며 줄서지 않고, 오히려 지역주민 눈치를 볼테니 더 좋은 것 아니냐"라는 각성이다.

민주당이 '내 입맛'이 아니라 '지역민의 입맛'에 귀 기울이고 눈을 맞추라는 경고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민주당'인 선거가 될 것인가. 비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에 관심이 증폭되는 이유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여름철 폭염, 작은 실천이 생명을 지킵니다

박 동 현
/신안소방서 119안전센터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높은 습도와 강한 햇볕으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지역 중 하나다.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닌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대표적이다.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의식 저하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 야외 근로자 등은 폭염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행동요령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우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 충분한 수분을 유지해야 하며,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주류 섭취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가장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과 농작업을 가급적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고 모자나 양산을 활용해 햇볕을 차단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창문을 통해 환기를 자주 하고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해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TV, 라디오,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는 관심도 필요하다.

폭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대비해야 할 재난이기 때문이다.

만약 주변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옷을 느슨하게 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하고, 의식이 없거나 상태가 심각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는 매우 위험한 응급상황으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폭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사전 예방과 관심으로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나 하나의 안전수칙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임을 기억해야 한다.

캠핑의 계절, 즐거움과 안전을 함께 챙기세요

김 홍 순
/고흥소방서 예방안전과

따뜻한 햇살과 맑은 공기가 가득한 5월, 6월은 캠핑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다.

주말이면 전국의 캠핑장마다 텐트가 가득 들어서고,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자연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난다.

그러나 야외에서의 즐거운 시간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실제로 매년 5~6월 캠핑 성수기마다 화재, 일산화탄소 중독, 야생동물 위험, 익수 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 봄, 캠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즐기시길 바란다.

▷첫째, 화재 예방…불씨 하나가 산불로

-모닥불은 지정 화로대에서만 사용하고 자리를 비울 때 반드시 소화한다.

-텐트 근처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소화기나 물통을 항상 근처에 비치한다.

-건조한 날씨에는 화기 사용에 더욱 주의한다.

▷둘째, 일산화탄소 중독…무색무취의 침묵하는 위험

-텐트 내부에서 가스버너·숯불·난로 등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시켜준다.

-두통어지러움·구토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한다.

▷셋째, 음식 위생 …식중독을 조심하세요.

-식재료는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육류는 충분히 익혀 섭취한다

-조리 전후 손을 씻고, 음식물 쓰레기는 즉시 밀봉하여 야생동물 접근을 차단한다.

▷넷째, 응급 대비…준비된 캠퍼가 안전하다

-기본 응급처치 키트(소독약, 붕대, 해열제 등)를 반드시 챙긴다.

-캠핑장 인근 병원소방서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긴급신고 번호(119)를 기억한다.

캠핑은 분명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즐거운 추억이 아닌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

위에 소개한 안전수칙을 출발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캠핑을 즐기시기 바란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처·디엠코리아 (031)466-100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5,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지국안내

충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 정…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5368-2321
담 양…010-6604-1717
곡 성…010-5602-1785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2028-4800
강 진…010-3608-0472
장 성…010-3610-7824
함 평…010-6369-0045
영 암…010-4604-3742
무 안…010-2050-0136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고 흥…010-8924-2025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독자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